

삼성엔지니어링, 사우디 에틸렌 프로젝트 수주

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NPIC가 발주한 11억7800만달러의 에틸렌(Ethylene) 크래커 건설공사를 독일 Lind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고 7월21일 발표했다.

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은 8억5900만달러이며 2008년 7월 완공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5/07/22>